

## [ 오피니언 ]

## 데스크 시각

오주승



15일 대통령민주신당(신당) 대통령 후보로 정동영 경선 후보가 선출됐다. 141석의 원내 제1당 정동영 후보와 제2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간 한판 승부 구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꽤 그렇지만은 않다. 정 후보로서는 민주당 이인재, '장외후보'인 문국현씨 등 '범여권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동영 후보는 당내 경선이라는 예선전을 통과한 것 뿐이다. 후보단일화라는 예측 불허의 준결승을 거쳐야 한다. 결승전인 이명박 후보와의 단판 승부는 그 다음 문제다.

## '이명박 대자구도' 여전

신당이 지난 8월 말 경선에 들어갈 때만 해도 2002년 갑작과 흥분으로 돌아갔던 민주당의 주말경선드라마가 재연될 것이라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조직·동원선거로 인한 분란과 갈등이 한 원인되었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이 왜 집권해야 하는지, 집권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지 못한 데 있다.

전통적 지지층이 탈이 참여정부의 정책

리즈'에, '경선 중단'에서 '원샷 경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 후보에게는 조직·동원선거의 주인공이란 낙인이 찍혔다. 신당의 국민선거인 단표율은 16.2%

## 범여권 후보에게 주어진 과제

그쳤고, 민주당 경선은 한자리 숫자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 투표율 70%대에 1.5%포인트라는 박빙의 승부로 끝난 한나라당 경선이 차리리 더 재미 있었다.

국민들은 왜 신당이나 민주당 경선을 외면했을까. 조직·동원선거로 인한 분란과 갈등이 한 원인되었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이 왜 집권해야 하는지, 집권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지 못한 데 있다.

전통적 지지층이 탈이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수행 능력에 대한 실망 때문이란

점을 감안하면 안이하기 짜이 없는 행동이다. 열치기 진보 흥내를 내다가 도적적 우위도 잊고 말았다. 국가의 그랜드 비전 제시나 정체성에 대한 호소도 미약했다.

경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이 후보 공약의 허실을 갈파하는 데도 실패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경쟁이 중요한 선거의 절차가 실종됐다.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토목 경제'이라 '개발시대의 유물'로 비판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지지층 재집합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심하다.

의 차이는 여전히 30~40% 이상이다. 후보 확정에 따른 급상승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선 구도는 아직 '이명박 대 정동영·이인재·문국현 등 범여권 후보간의 대자구도'이다.

## 험난한 승부수, 후보단일화

범여권은 후보단일화만 이뤄지면 1997년이나 2002년 대선 때처럼 이명박 후보와 단일 후보간 '5대 49'의 박빙 승부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공학적 세법만으로 표를 얻을 수는 없다. 범여권 후보들간에는 공통점도 많지만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상이한 측면도 적지 않다. 또 후보 선출 절차를 거친 후보가 임의로 사퇴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정의에 비춰볼 때 맞지도 않다. 범여권 후보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의 지지율을 갖고 설령 단일화를 한들 2002년 노무현·정동준 단일화 같은 폭발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뻔한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단일화는 국민들을 움직일 수 없다. 총선 공천권이나 당권을 나눠먹는 방식의 정치적 품수나 거래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도 없다. 이런 단일화라면 차리리 안 하는 것이 낫다.

범여권 후보들은 국민의 의문을 받게 된 이유를 곱씹어보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정치부장 jsoh@

범여권의 마지막 승부수, 후보 단일화의 관건은 지지율이다. 지지율이 최소한 20%는 넘어야 범여권의 대표주자로서 힘이 실린다. 범여권 후보 3인간의 '지지율 생생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정동영 후보가 신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여론조사상 약간의 변화는 예보인다.

CBS 조사 결과 정 후보는 20.2%의 지지도를 기록, 처음으로 20%대에 올랐다. 문화일보 조사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은 15.7%로 9월 조사에 비해 6.3%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 시설

## 아동 성추행범이 원어민 영어교사였다니

인터넷이 전 세계에 공개수배한 아동 성추행범이 최근까지 광주의 한 학교에 서 영어교사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남아 일대에서 어린 소년들을 성추행한 비코(Vico·별명)가 인터넷을 통해 수배하자 지난 11일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외국인 강사의 채용 및 관리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비코는 남성인 비코의 범죄행각은 끔찍하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성추행한 소년 12명의 모습과 성추행 장면을 담은 200여장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수배하자 지난 11일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인터넷은 인터넷 수배를 통해 이름과 국적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15일 얼굴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광주 등 한국에서의 범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의 아이들이 성추행범의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당국은 원어민 강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을 성추행범과 미약사법 등 전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있는 일이다. 채용 및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다.

## 국회 정상화…'민생 우선' 약속 지켜라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참여 거부로 과행을 빚어온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참여 결정으로 17일 법제사법,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자 등 14개 상임위원회로 국감에 착수한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각 정당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저마다 '민생국회'를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과 지역현안 법안 등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생이라는 '촛불'보다 대권이라는 '잿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순항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감의 초점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겸증에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국감'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겸증으로 맞서고 있다. 대선 전조전 성격의 국감에서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정기국회는 '대선국회'보다는 약속한 '민생국회'를 우선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고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모처럼 정상화된 정기국회가 순항하길 기대한다. 민생을 외면해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無等鼓

성과급이라는 것은 본래 할증 임금제에 있어 일정 생산액 이상의 능률을 올린 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그러나 흔히 보너스라는 것은 이와 달리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 보조적 의미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봉건적 관습에서 추석·설·설 등의 상여나, 기업의 회계별 결산 시 이익잉여금 분배 관습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다. 전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의에 의해 시혜적·공로·포상적 이운분배의 형식을 취해 직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측의 하계수당·월동자금·기말수당 등 요구에 의해 생활비 보조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지 오래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 비난을 받고 있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업무성과를 근거로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전년도 근무실적이 전무한 신입사원들에게도 지급했을 뿐이다.

더구나 국민연금공단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면서 정작 제 밥그릇 쟁기기에 급급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대선 후보든, 공기업 개혁방안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는다면 상당한 득표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온편칼럼

박행순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사업과제로서 지난 5월 중국 상해와 북경의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였다. 중국에 한국학교가 여럿 있는데 모두 중국학교를 빌려 쓰면서 비싼 임대료를 내다가는 이 두 곳은 지난 2006년 정부지원금과 지역 유지, 학부모들의 후원으로 자체건물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아직 내부시설과 기자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였다. 컴퓨터는 조립풀이어서인지 고장이 잦았고 과학실험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따라서 과학탐구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2년 '중국인민공화국 과학기술 보급법'을 법제화하였으

청소년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하여 모국어인 한국어, 현지어인 중국어, 세계어인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차분하게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중국은 무섭게 발전하며 우리를 추격하고, 일본은 딸 빼르게 앞서 달려가니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되겠느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진대 중국을 향한 글로벌 꿈나무들이 자라는 모관이 바로 한국국제학교이다.

오는 11월 6일부터 상해 한국학교 측

## 재외국민 어린이 과학교육에 관심을

9월 셋째 공휴일을 '전국과학기술보급일'로 정하여 전 인민을 과학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있다. 초등학교의 과학 실험에 큰 비중을 두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건물만 확보한 한국학교는 더욱 상대적 빙곤감을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신적인 교사들과 인사상 밝고 명랑한 학생들, 진행되는 교과과정 등은 이 청소년들이 향후 중국전문가로 활동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우리는 글로벌 마인드를 강조하고, 이 시대에 글로벌 인재가 필요함을 누구나 공감한다. 그리하여 초등학생 어린자녀들을 용감하게 미국에 떠어놓고 오거나, 기력기아빠를 양산하면서 비정 상적 가족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 중국의 한국학교에서는

온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온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 車구입 두달만에 소음…'경차'라 감수하라니

최근까지 타던 중고차를 처분하고 경차를 샀다. 구입비는 물론 보험이나 기름값 등 꽤 다한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니 굳이 큰 차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를 타다 보니 차 내부에서 연신 잡음이 났다. 처음에는 동전을 어딘가에 잘못 넣어버렸거나 기름이 뛰어나거나 차에 부딪치는 것 같았지만, 차에 들어가니 차 내부에서 연신 잡음이 났다. 그것이 뭔가와 부딪치는 것 같았지만, 차의 성능이나 부가 장치 등에 있어서 3~4천만원짜리 차와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작고 값싼 차라도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자동차 회사의 의무다. 수리를 했지만 쓸쓸했다.

▲김일락·보성군 문득면

## 기고

백현숙



최근 모스크바 중앙국립미술관의 특별 초대로 국제전시회에 참가, 유럽의 미술 흐름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아시아 작가들에게 좀처럼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모스크바 중앙국립미술관의 초대전이어서 감회는 남달랐지만, 무엇보다 예술을 즐기는 러시아인들의 문화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낙후한 나라로 알고 있으나, 문화를 삶 속에서 즐기는 시민들이라는 토양에서 성장한 문화대국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가 예향이면서도 캐리리를 찾은 사람들이 손을 꼽을 정도로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모스크바 시민들의

이 설립자이자, 학장을 역임했던 미술 교육의 산실이다.

무엇보다 레핀 미술학교는 철저한 기본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었다. 국내 미술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작품 제작 기간이 단기간인데 비해 이곳에서는 작품 하나를 완성, 심사를 통과하는 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학생들은 먼저 작품을 스케치한 뒤 지도 교수의 심사에 합격해야 비로소 그림을 제작할 수 있다. 스케치 작품 하나가 심사에 통과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들이 20호 크기의 누드화를 그리려고 2개월 동안 하루 7시간씩을 투자하는 것은

## 문화적 소양은 어릴 때부터

미술에 대한 사랑은 유별났다.

우리 일행이 전시를 위해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왔다. 어린이들은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은 부모들은 작품 하나 하나를 뜯어보듯이 감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들과 끊임없이 작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전시장을 찾은 인과들 때문에 일부 부스에서는 전시를 마치기도 전에 전시 팝업이 동이 날 정도였다. 그만큼 이들이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문화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다니는 방증이었다.

모스크바 미술의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들려온 미술대학은 국내 미술교육을 되돌아보게 하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러시아 문화의 또 하나의 저력은 미술가들을 배출하는 대학이었다. 러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예술기관인 레핀 미술학교는 미술계의 거장 일리야 레핀

보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탄탄하고 깊이 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미술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작업하는 작가들도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철저한 기본기가 결여된 작업은 사상누각과 같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인들의 문화는 예술적인 도심공간과 그 공간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궈내는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옹한 성당들(러시아 정교회), 거리의 동상들, 조각품들 앞에는 경외감이 앞선다. 모스크바의 아르반트 거리(서울의 대학로와 비슷)의 풍경을 만들고 있는 악자들, 화가들, 가수이자 러시아인들의 영웅인 블로트르 죄의 비보를 담은 벽화의 낙서들은 살아있는 러시아 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상계갤러리 관광〉

## 5인 이상 대가족 가구 전기요금 할인 받으세요

시기기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호흡기장애 또는 흐리난 치성질환으로 정에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8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할인 적용받게 된다.

가까운 한인전시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 kepcoco.co.kr)에서도 가능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김철·전 한국전력공사 요금관리팀장